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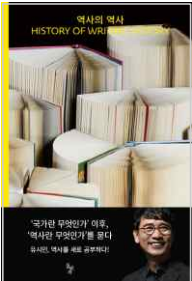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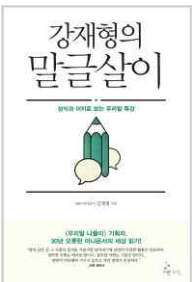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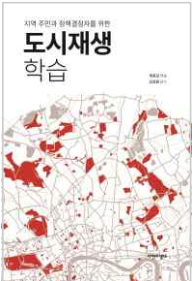

서로(書路)함께 도시추천위원회 추천도서 목록(2018.3분기)





연번	위원명	추천도서	비고
1	이정수 (서울 도서관장)	시민(신진욱, 책세상, 2008)	
2		사소한 부탁(황현산, 난다, 2018)	이소영 위원 동시추천
3		역사의 역사(유시민, 돌베개, 2018)	이소영 위원 동시추천
4		강재형의 말글살이(강재형, 다우출판, 2018)	
5	이소영 (출판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유현준, 을유문화사, 2015)	
6		타인의 시선(찰리 켄벨 외, 유피에이, 2018)	
7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파커 J.파커, 글항아리, 2012)	
8		세상을 움직이는 네 글자(김준영, 궁리, 2018)	
9	이용훈 (한국 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서울 선언(김시덕, 열린책들, 2018)	김성광 위원 동시추천
10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조영태, 북스톤, 2018)	
11		도시재생 학습(재종길, 자연과생태, 2018)	
12		고문서 반납여행(아미노 요시히코, 글항아리, 2018)	
13		우리 아파트에는 이야기가 산다(이야기두레, 행복한아침독서, 2017)	
14	선을 넘어 생각한다(백한식 외, 부키, 2018)		
15	정명욱 (수필가)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정승일, 책담, 2017)	
16		50+플러스의 시간(홍기빈 외, 서해문집, 2016)	
17		공공소통 전략(이종혁 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18		첫 마디를 행운에 맡기지 마라(최정화, 리더스북, 2018)	
19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기 사랑의 기술(이계정, 소울메이트, 2018)	
20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최태섭, 위즈덤하우스, 2018)	
21	김성광 (yes24 북마스터)	햇볕 장마당 법치(이종태, 개마고원, 2017)	
22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 흐름출판, 2018)	
23		경애의 마음(김금희, 창작과비평, 2018)	
24		내게 무해한 사랑(최은영, 문학동네, 2018)	





추천도서 상세 정보

연번	추천도서		비고	
1		<p>신진욱 (책세상, 2008)</p>	<p>‘시민’의 개념은 단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시민의 개념과 이념, 시민의 개념사와 사회사, 시민과 인접 개념들, 한국의 시민과 시민 사회 등을 살펴본다. 각 페이지에 나오는 전문용어는 해당 페이지의 윗부분에 자세히 설명하고, 책의 뒷부분에 개념의 연표 ‘시민’를 수록해 보다 쉬운 이해를 돕고 있다.</p>	이정수
<p>시민</p>				
2		<p>황현산 (난다, 2018)</p>	<p>문학평론가이자 불문학자인 황현산의 신작 산문집. 첫 글부터 마지막 글까지 그 어떤 흐트러짐이나 결눈질 없이 황현산이라는 사람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번역가로서의 소임을 다하면서도 우리 정치사회의 면면을 설 틈 없이 꼬집어가며 우리들의 잠긴 귀를 열게 하고자 다양한 지면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온 저자의 글을 모두 5부로 나누어 엮어냈다.</p>	이정수 이소영
<p>황현산의 사소한 부탁</p>				
3		<p>유시민 (돌베개, 2018)</p>	<p>경제학도, 정치가, 최근에는 방송인으로도 중형무진 활동하는 작가 유시민이 오랜 독서와 글쓰기의 원점인 역사 속으로 돌아왔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저자의 오래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역사의 역사를 깊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저자는 역사의 고전으로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거나 최근 관심을 끈 대표적인 역사서들을 찾아 틈틈이 읽고 정리했다</p>	이정수 이소영
<p>역사의 역사</p>				
4		<p>강재형 (다우출판, 2018)</p>	<p>MBC <우리말나들이> 아나운서의 책. 그가 <한겨레> 등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 요즘 현실에 맞춰 다듬고 꼭 필요하다 싶은 새 글을 보태어 책을 출간했다. 저자가 방송현장과 실제 생활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사례와 일화를 통해 우리말 사용법을 친근하게 풀어쓰고 있으며, 보통사람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쾌한 우리말 특강 책이다.</p>	이정수
<p>강재형의 말글살이</p>				

연번	추천도서		비고	
5		<p>유현준 (을유문화사, 2015)</p>	<p>이 책은 작은 골목부터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이르기까지, 도시 속에 담겨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과학을 읽어 내고, 도시와 인간의 삶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공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들이 만든 도시에 인간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과연 더 행복해지는지 아니면 피폐해지고 있는지를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종합 무진하며 도시의 답변을 들려준다.</p>	이소영
6		<p>찰리 캠벨 외 (유플에이, 2018)</p>	<p>이 책은 시사주간지 <타임>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현대사를 조망한다. 1950년부터 70년 가까이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타임> 커버를 장식한 기사를 포함, 총 12개의 기사를 수록했다. 당시 발간된 원문, 즉 영문 기사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당시 '국내의 시선'은 어떠했는지를 다양한 우리 신문 기사를 정리해 해설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p>	이소영
7		<p>파커 J. 파머 (글항아리, 2012)</p>	<p>미국의 사회운동가인 저자는 링컨 대통령의 재임시절과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과정을 사례로 들어 마음과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현실 정치에 대한 절망과 갈수록 늘어나는 부의 힘에 마음이 부서진 자들이 개인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이뤄 내야 하는 정치적 실천을 '비통한 자들의 정치'라고 부르며, 오늘날 비통한 자들의 정치가 발현되어야 할 이유를 근대성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태에서 찾는다.</p>	이소영
8		<p>김준연 (궁리, 2018)</p>	<p>이 책은 사자성어들을 해당 고전 원문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사자성어에 담긴 이야기는 오래전에 나온 것이지만, 요즘 들어도 흥미롭고 우리 삶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힘이 있다. 저자는 다양한 사자성어들을, 크게 '지혜로운 삶', '부지런한 삶', '함께하는 삶', '돌아보는 삶', '여유로운 삶'으로 나누어 각 파트 10개씩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p>	이소영

연번	추천도서		비고	
9		김시덕 (열린책들, 2018)	<p>문헌학자인 저자는 40여 년간 살고 생활했던, 특별할 것 없고 역사가 없어 보이는 곳들을 걸으며 조금은 다른 서울의 역사를 읽어 내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장소들은 아파트 단지와 골목, 주택가와 빈민가 등 얼핏 봐선 볼품없는 곳들이다. 저자는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파악하려면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를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자신의 도시를 걷기를 권한다.</p>	이용훈 김성광
	서울선언			
10		조영태 (북스톤, 2018)	<p>이 책은 인구학적 전망을 토대로 어떻게 시장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미래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인구변동의 8가지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로 주목해야 할 인구현상을 분석하고 전망과 기회에 대해 소개한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이든, 기업이든 남들보다 기회를 먼저 포착해 인구변동에서 새로운 시장이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p>	이용훈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11		제종길 (자연과생태, 2018)	<p>저자는 영국과 스페인을 찾아가 실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만났고 도시재생 역사, 과정, 현황과 실질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배웠다. 이 책에서는 성공 현장에서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생생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시재생 상황을 진단하고,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p>	이용훈
	도시재생 학습			
12		아미노 요시히코 (글항아리, 2018)	<p>패전 후 일본 정부는 시골 마을들에서 고문서를 대량으로 빌렸다. 하지만 국책 사업은 곧 해산되어 문서는 방치됐고 문서를 빌린 이들은 ‘도둑’으로 몰렸다. 저자는 빛을 갓고 누명을 벗고자 고문서 반납 여행에 나선다. 이 책은 문서 하나가 한 사람의 역사관을 바꿔나가는 과정을 밝힐 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고문서를 다루는 이들에게 자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p>	이용훈
	고문서 반납 여행			

연번	추천도서		비고	
13		이야기두레 (행복한이침묵서, 2017)	귀촌하지 않고도 아파트에서 정을 나누며 사는 마을공동체 열여섯 곳의 이야기. 삭막한 아파트를 정겨운 삶터로 바꾸고 싶은 아파트 생활자들에게 자극이 될 책이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급전을 빌려주는 마을협동금고와 독거노인의 말벗이 되어주는 봉사단 등 소소하게 아파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용훈
우리 아파트에는 이야기가 산다				
14		백한식 외 (부키, 2018)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인 저자가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그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이어지는 편견들을 극복해 나간다. 또한 북·미관계의 비공식 통로 역할을 했던 경험들을 살려 북한의 여러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북한과 교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실용적인 지침들 뿐 아니라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들도 제안한다.	이용훈
선을 넘어 생각한다				
15		정승일 (책담, 2017)	이 책은 시장주의가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는 봉건적, 중상주의적, 전근대적인 재벌그룹과 관치경제가 온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또한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은 산업 민주주의와 노동권 또는 노동자의 권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정명옥
누가 가짜 경제 민주화를 말하는가				
16		홍기빈 (서해문집, 2016)	50세 이후 빛나는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쪽에서는 은퇴자금 10억을 준비해놓아야 한다며 공포심을 자극하고, 한쪽에서는 청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며 세대갈등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1인이 릴레이 특강으로 모였다. 이들은 세대와 자본의 프레임을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타인 및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사는 즐거움을 발견하자고 강조한다.	정명옥
50+플러스의 시간				

연번	추천도서		비고	
17	 <p>공공소통 전략</p>	<p>이종혁 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5)</p>	<p>공적 조직이 전개하는 PR에 대해 이론과 실용을 바탕으로 열 가지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일방적 정보 전달 방식 탈피를 위한 대안, 과정을 중시하는 소통 활성화, 조직 옹호에서 벗어나 공공과 관계를 모색하는 소통 등 이상적으로만 논의되던 주장을 구체화한 대안들이다. 공공의 현장에서 대안적 전략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정책 PR이 구현되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p>	정명옥
18	 <p>첫마디를 행운에 말하지 마라</p>	<p>한화순 (메디캠퍼스, 2015)</p>	<p>대한민국 대통령 5인의 정상회담 통역사이자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했고, 오피니언 리더와 기업 CEO들의 말하기 멘토이기도 한 저자가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격 있게 말하고 듣는 방법을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는 유창한 말 백 마디보다 진심을 담아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첫걸음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화려한 언변이나 참신한 표현법을 넘어 격 있는 통력을 지닐 것을 강조한다.</p>	정명옥
19	 <p>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기사랑의 기술</p>	<p>이계정 (소울메이트, 2018)</p>	<p>상담심리전문가인 저자는 지나친 자기사랑을 낮춘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봄으로써 내면의 치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깊이 있는 지식을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아온 다양하고 풍부한 상담사례와 함께 풀어냈으며, 자칫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책, 음악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p>	정명옥
20	 <p>억울한 사람들의 나라</p>	<p>최태섭 (위즈덤하우스, 2018)</p>	<p>사회학자인 저자가 2015년 이후부터 각종 매체에 기고한 사회비평 칼럼을 모아 엮은 칼럼집. 세월호에서 미투까지 2010년대의 핵심 사건들을 따라가는 동시에, ‘헬조선’부터 ‘한남’에 이르는 수많은 키워드를 통해 억울함이라는 시대정신이 주도하는 이 사회의 천태만상을 관찰한다. 이 사회에 억울함이 창궐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동시에 곧 2020년대를 맞이할 한국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p>	정명옥

연번	추천도서		비고	
21		<p>이종태 (개마고원, 2017)</p>	<p>현재 북한의 밑바닥 인민들 생활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싹트고 있는 시장 경제적 변화가 있다. 이미 시장경제의 맹이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의 일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장의 발전이 자유를 증진시키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보편적 과정은 중국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되는 바다. 이것이 북한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변국과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북문제 접근법을 보여준다.</p>	김성광
	<p>햇볕 장마당 법치</p>			
22		<p>필리프 반 파레이스 (흐름, 2018)</p>	<p>이 책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가짜 뉴스 등을 바로 잡고, 올바르게 진지한 논의를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소득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한다. 기본소득의 처음과 끝이 담긴 책으로, 기본소득이 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지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준다.</p>	김성광
	<p>21세기 기본소득</p>			
23		<p>김금희 (창작과비평, 2018)</p>	<p>고등학교 시절 호프집 화재 사건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경애와 같은 사고 현장에서 단 한명의 소중한 친구를 잃은 상수가 만나며 시작되는 소설로, 한 가지 독법으로 해석할 수 없을 만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수작이다. 재난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삶을 견디며 나뉘는 애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p>	김성광
	<p>경애의 마음</p>			
24		<p>최은영 (문학동네, 2018)</p>	<p>데뷔작 <쇼코의 미소>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소설을 쓰는 작가”라는 평을 받으며 10만 부 돌파라는 기록을 남긴 최은영의 두 번째 소설집,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어떤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 과거를 불러내는 인물들의 7편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p>	김성광
	<p>내게 무해한 사람</p>			